'행복한 농촌마을 만들자'

한국농촌건축학회 학술세미나… '농촌 정주환경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무주군에서 지난 19일과 20일 한국 농촌건축학회 학술세미나가 개최됐

이날 세미나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0여 명이 참석했다.

19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에서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열린 발표대회는 영남대 도현학 교수의 사회로, Δ 농촌지역 경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Δ 기존시설을 이용한 지역시설계획, Δ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문제점과 발전방안, Δ 농촌지역 의료 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Δ 마을 만들기 방법론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방안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무주군에서는 조영자 도시개발 담당이 Δ무주지역의 정주환경과 지역전 망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서는 한남대학교 김학래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순천대학교 이 동희 교수 등 6명의 발제자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과소화 마을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농촌 공간과 공동체 회복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공유됐으며, 귀농ㆍ귀촌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상향식 농촌마을 만들기 활동이 지속됨에 따른 농촌 환경과 경관, 주택 등 정주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됐다.

한편, 20일에는 부남면사무소와 항 토박물관, 버스정류장, 적상면사무소, 무주시장, 무주군청, 농민의 집, 등나 무운동장 등 무주군 공공건축물(정기 용 건축가) 답사가 이어졌다.

무주군과 한국농촌건축학회는 지난 2월에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집 고쳐주기와 한국농촌 건축대전 등을 개최해 무주를 농촌지역 발전 우수모델로 만들기 위한 다



무주군에서 지난 19일과 20일 한국농촌 건축학회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양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촌건축학회 김승근 회장은 "무주는 농촌지역에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학회에서도 무주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귀 면민의날·화합한마당 행사 성료

애향장 김정섭 · 공익장 노심규 · 산업장 장진문 수상

진안군 부귀면 '제39회 면민의 날 및 화합한마당' 행사가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김현철 도의 원, 면민, 향우, 자매도시 등 1,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사무 소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식전공연으로 부귀면 어울 림 풍물교실의 터울림 공연을 시 작으로 신비람 노래교실의 노래와 어르신 체조팀의 건강체조, 아라 리 민요교실의 우리가락 민요공연 으로 행사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기념식에서는 면민의장 애향장 에 김정섭(61), 공익장에 노심규 (50), 산업장에 장진문(65)씨에 대한 시상과 이해석 전 면장과 부귀 중앙교회 전택복 목사에 대한 감 사패, 김삼곤 민원팀장에게 공로 패를 수여했다.

또한 지난 1977년 설립된 부귀영화장학회에서 이날 처음으로 고등학생 2명, 대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고리걸기, 투호, 바구니 콩주머니 넣기, 줄다리기, 배구 등 체육행사와 면민노래자랑으로 면민과향우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국

전국어울림 파크골프대회 성황

지역 *소식통*

진안홍삼배

제5회 진안홍삼배 전국어울림 파크골 프대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안 읍 운산리에 위치한 진안파크골프장에 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23개 지역, 390여명 의 선수들이 참가해 단체와 개인전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진안홍삼배 전국어울림 파크골프 대회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이 상호 화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대회가 열린 진인군파크골프장은 용단 호자연생태습지공원 유휴지 1만9000여 ㎡ 잔디광장에 건설된 전국 3번째 규모 이며, 전북 유일의 18홀 정식 규격의 파 크골프장으로 내년 전국장애인체전이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30만㎡의 용담호지연생태습지공원에는 자연 및 인공 습지, 수생식물, 탐방로, 관찰데크, 잔디광장 등이 설치돼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은 수질개선 과 생태계 복원이 고려된 자연친화적 공원이다.

군 관계지는 "파크골프를 누구나 즐길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생활체육으로 권장하고 싶다"며 "내년에는 이번에 느 낀 불편함을 해소하여 지역홍보는 물론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 성공방안 모색 무주농업발전위원회 1차 워크숍

무주군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무주농업발전위원회 1 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위한 지역농정 거버넌스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관내 농정관련기관과 농업인 단체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농업 네트워크 박영 범 대표가 강의하는 거대한 전환, 새 로운 전략 주제의 특강을 듣고 제3 회 무주반닷불농 · 특산물대축제 성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니실에서 무주농업발전위원회 1차 워크숍을 개최해다.

장수군 자원봉사자 화합과 교류 워크숍 개최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주관한 2017년 장수군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교류 위크숍을 19일 오 전 10시 30분부터 장수타코마 리조트 컨벤션 홀에서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행시는 장수군자원봉사자 간의 소통 및 화합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고 2017년도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으로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교육연수원장 안옥주 원장의 자원봉사자의 인성과 품격 리더에게 필요한 마음가집과 애경사 매너를 익 히고 실천하는 강의를 진행했으며, 식 사 후 지원봉사자 간의 화합과 교류 의 시간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지원봉사자는 "비쁜 농사철이지만 시간을 내어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시간이었으며, 다른 단체들과의 화합과 교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영하 센터장은 "앞으로도 장수군 지원봉사자들과 많은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미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기자

진안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진안군은 안전신문고 신고 및 안전점 검 생활화 홍보를 위한 제254차 안전점 검의 날 행사를 진안시장과 터미널 등 에서 가졌다.

이날 행시는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 예찰단 등 50여명이 함께 참여해 장날 유동인구가 많은 진안시장과 터미널 등 에서 리플릿 배부, 피켓 홍보 등을 실시 했다

특히 국민안전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 사용해줄 것을 중점 홍보했다.

안전신문고는 주민들이 주변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협요소를 휴대폰카메라로 찍어 신고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접수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군 관계지는 "평소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생활화하여 안전신 문고 사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안 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진안군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시기별 테마를 정해 재난취약요소 안전점검과 군민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을 실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벼 육묘' 지원 사업 448농가 신청

6만여 상자 접수··· 육묘 1상자 당 560원 농가 부담 · 2240원 지원

장수군이 시행하고 있는 '벼 육묘'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크 다. 고령 농업인을 상대로 실시되는 '벼 육묘' 지원 사업은 농촌인구 고 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육묘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70세 이상 농가 또는 65세 이상 독

거 여성 농업인 중 벼 경작면적 6,600 ㎡이하 소규모 영세 농업인이다.

군은 고령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 고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 난 3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 수한 결과 448농가 6만여 상자가 접 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육묘 1상자 당 2,240원을 군에서 지

원하고 농가는 560원만 자부담하면

군은 5월부터 공동육묘장을 통해 육 묘 공급을 시작하여 6월 초까지 공급 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지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영 농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시책을 펼겠 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이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 '201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중앙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

이번 결과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실태와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군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2016.11.15.∼2017.3.15.)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간 고립 예 상지역에 대한 DB를 구축해 집중 관 리하는 한편, Δ신속한 제설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Δ도로 등급별 제설대책을 추진해 호 평을 받았다.

특히 \triangle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triangle 유관 기관·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인력과 물자를 공유하고 \triangle 지역 자율 방재단을 적극 활용하며 민·관·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관심을 모었다.

